

■ 교회소식 ■

1. 평화세미나 :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평화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제는 '남남 갈등과 분단 극복의 과제'이고 강사는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학교)입니다.
2. 리프트 : 리프트 이용 시 5인까지만 탑승 가능합니다. (휠체어 탑승 시 3인)
3.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앙실천 : 지난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살 곳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행26:24-29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윤성종	

6월	1부 영접위원	곽관희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정 정연희 한상경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해선 송동준 이재선		
오늘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진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오
묘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35. 큰 영화로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 덧 한 해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부를 바라보는 하지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권태로운 시선을 거두고, 높이 뜬 하지의 태양처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간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인간됨의 토대인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낫을 피해 성을 높이 쌓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소중한 관계를 진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롬8:1-2 인도자
 ▲ 교 독 문 30. 시편67편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함께
 ▲ 성경봉독 요나 4:5-11 I. 인도자
 II. 정원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하나 되어 마중물 찬양대
 II. 주님 감사해요 참빛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새롬 김도윤 김명희 김문주 김선지 김용진 박효선 김정린 김정수
 정자현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해리 김충실 조아라
 김태은 김태정 김현주 김희선 박기태 박미연 박석희 조항미 박숙미 박영진
 박옥순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박창운 허정윤 송정근 이소선 송효진 신문희
 신영옥 안길상 이형숙 오미숙 우순덕 유지은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수자 이용석 이유진 이주경
 안상숙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영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장원호 박성희 정원석 김현영 최소라 고인성 최영민 이상미 최옥자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형주 한지원 허진영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혜린 권두리 권정이 김성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근 김중수 이순정 김진혁
 신다현 맹수미 박숙미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박창운 허정윤 신현일 엄은경
 오민용 윤선호 임선아 이고임 이상도 임은영 임채진 이영희 장경석 장현희
 정구봉 황선옥 김준호 곽해자(딸 결혼) 은종인(퇴원) 정재기(이사)

생일감사헌금

이형석 조순덕

녹색꿈헌금

엄소현 이고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한림 김명희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겨울 햇살에

- 서정홍

아흔 살, 인동 할머니
겨울 햇살에 앉아 하루 내내
떨어진 곡식 포대를 곱고 있다

거저 가져가라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포대를
돈으로 따지면
새 것이라도 칠팔백 원밖에 하지 않을 포대를
그리운 자식처럼 끌어안고

할머니 살아온 세월만큼
여기저기 닳고 해진 낡은 포대는
생살보다 기운 자리가
더 많은 낡은 포대는

어느새 할머니 동무가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겨울 햇살에 스르르 잠이 든다
할머니 품에 자식처럼 안겨

말 씬	요나는 도처에 있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찬 양	참 좋으신 주님	김행자 이경희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몸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몸과 마음의 고삐를 주님의 말씀에 비끄러매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평화세미나 / 허호익 교수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개미 그릇

친정엄마는 손이 아주 크다. 뭐든 만들면 넉넉해서 이 집 저 집 퍼 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먹인다. 그런데 나는 엄마를 안 다했다. 내 판에는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면 양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찬을 만들면 한 끼니 분량으로 푹 떨어지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때그때 만들어 싹싹 해치우니 개밥 거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 형편인 것이다. … 일부러 나눠 먹을 요량으로 작심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라 아주 가끔은 단단히 버리며 마음을 낼 때가 있다. 제사나 생일 같은 때, 모처럼 방앗간에서 떡 해 왔을 때. 이번 다랑이 생일 때도 그랬다. 생일 선물로 먹고 싶은 거 하나를 말하라고 했더니 주저 없이 딸기 케이크라고 하기에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인터넷으로 딸기를 주문하고, 방앗간 가서 쌀가루 빵고, 생일 하루 전날 딸기잼과 두부 딸기크림을 만들어 두고, 생일 당일에 떡을 찌 내고. 나름 미리미리 설새 없이 움직이며 넉넉히 만든다고 만들어 집집마다 한 조각씩은 돌릴 수 있을 만큼 만들었다. 한데, 아이들이 맛있다며 더 달라 더 달라 하는 통에 이웃에 돌릴 것까지 거의 다 먹어 버렸다.

허망했다.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또 내 식구 밖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다행히 크림은 아직 남아 있어서 고민이 되었다. 내일이라도 떡케이크를 다시 해서 돌릴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모처럼 마음을 냈으니 불씨를 살려 보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떡을 찌서 케이크를 돌렸다. 그리고 나니 헉헉 숨이 찼다. 꼭 해야 할 일도 미뤄 두고 쌓아 두고 있는 형편에 내가 도대체 왜 이려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굳이 속을 탈탈 털어 조사를 해 보자면, 나는 다른 데 눈 돌릴 틈 없이 나 사는 데만 몰입해 있는 삶에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준 것보다 남한테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이걸 되갚지 못하고 사는 데 대한 빚진 마음이라까? 아직은 시기적으로 애들이 어리니까 나눌 것보다 채울 게 많은 걸 어찌겠냐며 자기합리화를 해 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다. …

아무튼 나는 조금이라도 빛을 갹아 나가고 싶어서 이려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손 큰 사람이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언제 어느 때고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 버릇해서 1밀리라도 그릇을 키워 보려고 말이다. 아니, 그릇을 키운다기보다 작은 크기 뭉이라도 내 뭉을 떳떳하게 감당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난 그릇이 작아서 안 돼' 하고 마냥 뒷집 지고 있기보다 작으면 작은 대로 내 역할 감당하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재미난 이야기가 떠올랐다. '개미 그릇'이란 제목의 이야기.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들려 줬더니 반응이 나쁘진 않다. 심지어 다올이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 주겠다고 다음 날 당장 이야기에 맞는 삽화까지 여러 장 그려 주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많은 것을 담아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다른 친구들 곁에 있으니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 내가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었네? 난 작은 그릇이구나!

그릇은 시무룩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얼 담아 나눌지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꿈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겠어요.

밥상 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수밖에요.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반찬 그릇이 된 친구들은 정말이지 멋져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미 떼가 나타나 킁킁, 그릇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고? 나 같은 게? 보다시피 난 아주 작아."

"무슨 소리야. 넌 정말 커."

그릇은 이제 개미들의 공동 밥그릇이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그릇을 "거대한 밥 놀이터"라고 부릅니다.